

2015년04월09일년 수능(윤리와사상) 필기시험 기출문제 답안

【1과목 : 19문제】 과목구분없음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②	⑤	④	①	⑤	①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⑤	⑤	①	④	①	③	⑤	②	③	

전자문제집 CBT 홈페이지 : <https://www.cbtestpro.kr>

최신 수정 자료와 해설(오타 · 오답 · 규정변경)은 cbtestpro.kr 웹 및 앱에서 확인하세요.

기출문제의 저작권은 출제기관에 있습니다. cbtestpro.kr 및 관련 앱에서는 편집 및 재구성 작업만 하였음을 밝힙니다.



전자문제집 CBT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워 시험 합격을 노려라!





전자문제집 CBT(App Store) : [\[다운로드\]](#)

전자문제집 CBT(Google Play) :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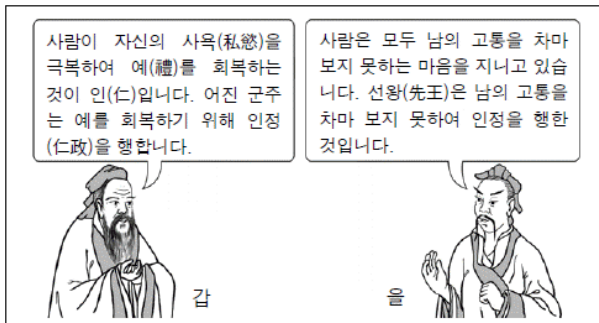
【1과목】 과목구분없음 (19문제)

1. 다음 글에 나타난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인공을 차별하는 인도인 등록 법령에 대해 불복종하고, 그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 나는 인도의 한 시민으로서, 또한 양심을 존중하는 한 사람으로서 비폭력을 통해 정의(正義)를 행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처벌된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중죄인이 되어 명예를 얻고자 할 것이다.

- ① 도구를 사용하여 자연적 제약을 극복하는 존재이다.
- ② 유희적 활동을 통해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 ③ 자연의 법칙을 파악하여 주어진 운명에 따르는 존재이다.
- ④ 올바른 신념을 실천하여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 ⑤ 초월적 신을 믿음으로써 삶의 유한성을 극복하는 존재이다.

2. 그림은 고대 중국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보 기 > —

ㄱ. 갑은 인정(仁政)의 실현을 위해 법(法)과 술(術)을 강조한다.
ㄴ. 을은 백성의 일정한 생업[恒産]이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ㄷ. 갑은 을과 달리 정명(正名)에 근거하여 역성혁명을 인정한다.
ㄹ. 갑, 을은 통치의 핵심으로 군주의 도덕적인 자질을 중시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3.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은 뿔자리에 있는 이들이 세금을 많이 취하기 때문이다. 백성들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뿔자리에 있는 이들이 작위(作爲)함이 있기 때문이다. …(중략)… 성인(聖人)은 불욕(不欲)을 원하여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불학(不學)을 배워 자연에 의지할 뿐 결코 작위하지 않는다.

- ① 백성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문명을 발달시켜야 한다.
- ② 무지(無知)와 무욕(無欲)을 통해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 ③ 천리(天理)를 기준으로 삼아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한다.
- ④ 서로 이익을 나누고 평등한 사랑[兼愛]을 구현해야 한다.
- ⑤ 예법(禮法)을 통하여 인의(仁義)의 덕을 실현해야 한다.

4. (ㄱ)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어느 현대 윤리 사상에서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보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의 물음에 주목하여, 옳고 선한 행동을 하려면 무엇보다 유덕한 성품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상은 근대 윤리 사상이 인간 내면의 도덕성의 근원과 개인의 인성을 소홀히 한 채 도덕적 의무와 원리의 탐구에만 치중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_____ ㉠ _____’는 점을 더 강조한다.

- ① 덕성을 함양하는 것과 도덕 공동체는 관련이 없다.
- ② 도덕적 행위에서 인간의 욕구나 감정은 필요하지 않다.
- ③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도덕 법칙의 확립이 가능하다.
- ④ 공리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관습적인 도덕을 극복해야 한다.
- ⑤ 도덕 판단에서 행위보다는 행위자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5.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보편은 사물들에 앞서 신의 정신 속에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개별 사물들 속에 내재해 있는 것도 아니다. 보편은 단지 이름일 뿐, 실재하지 않는다.
을: 보편은 실재하며, 개별 사물들 안에 존재한다. 세계의 모든 사물들은 질서 정연하게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 사물들을 목적으로 인도하는 지성적인 존재는 신이다.

- ① 갑은 신을 정신적 실체인 동시에 자연 그 자체로 본다.
- ② 을은 참된 행복이 도덕적 덕을 획득하여 완성된다고 본다.
- ③ 갑은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을은 불완전한 존재로 본다.
- ④ 갑은 을과 달리 신학으로부터 철학을 분리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인간이 신의 은총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본다.

6.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행복은 곧 쾌락이며, 불행은 쾌락의 결여를 의미한다. 쾌락을 평가할 때 양만을 중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쾌락의 질도 고려해야 한다.
을: 행복과 도덕을 구별하는 것이 곧 양자를 대립시키는 일은 아니다. 순수한 실천 이성만은 단지 의무가 문제시 될 때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뿐이다.

- ① 사회적 이익의 산출이 옳은 행위를 정당화하는가?
- ② 동정심에 의한 행위는 그 결과와 무관하게 옳은가?
- ③ 도덕적인 옳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행위의 동기인가?
- ④ 도덕적 행위에서 자신의 행복을 고려하지 말아야 하는가?
- ⑤ 사회적 전통의 준수 여부에 의해 옳고 그름이 판정되는가?

7. 을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의 A에게 해줄 수 있는 적절한 조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행복은 곧 쾌락이며, 불행은 쾌락의 결여를 의미한다. 쾌락을 평가할 때 양만을 중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쾌락의 질도 고려해야 한다.
을: 행복과 도덕을 구별하는 것이 곧 양자를 대립시키는 일은 아니다. 순수한 실천 이성만은 단지 의무가 문제시 될 때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뿐이다.

<문제 상황>
경제적으로 형편이 곤란한 A는 등록금을 내기 위해, 값을 수 없는 것을 알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값값다는 거짓 약속으로 친구에게 돈을 빌릴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

< 보 기 >
ㄱ. 가장 좋은 결과를 고려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ㄴ. 친구의 처지를 공감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ㄷ. 친구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ㄹ. 거짓 약속이 보편화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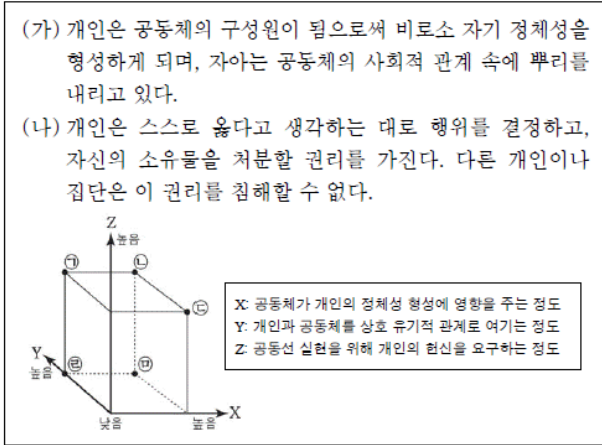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8. 동양 사상이 갑, 을의 공통된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지혜로운 이가 어리석은 이에게 법(法)을 전하고, 이것이 어리석은 이의 마음으로 이어져 단번에 진여(眞如)의 성품을 깨닫게 되면 지혜로운 이와 다를 것이 없게 된다.
을: 지혜로운 이는 그 빛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성실하지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정신은 순수하고 영혼은 고달프지 않으며, 마음을 텅 비게 하여 자연의 덕(德)과 하나가 된다.

- ① 이론적 지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한다.
- ② 배움을 통해 사회의 도덕규범을 수용할 것을 강조한다.
- ③ 관심(觀心)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교화할 것을 강조한다.
- ④ 오감(五感)을 통해 얻은 경험적 지식의 확실성을 중시한다.
- ⑤ 선(善)을 행하기 위해 분별적 지혜를 쌓는 수양을 중시한다.

9. (가), (나)는 사회사상이다. (나) 사상에 비해 (가) 사상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ㄱ) ~ (ㄷ)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ㄹ)
- ⑤ (ㄱ)

10. 근대 한국 사상이 갑, 을, 병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이 도(道)이고, 수시로 변화하는 것이 기(器)이다. 동양의 도로써 서양의 기를 행한다면 지구의 오대주를 평정치 못할 것도 없다.
을: 말세(末世)에 이르러 무극대운(無極大運)이 열리나니 이제 해원 시대(解冤時代)라, 은인(恩人)과 같이 사랑해야 속히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병: 동(東)에서 나서 동에서 받았으니 도는 천도(天道)이나 학(學)은 동학(東學)이라. 서양의 학문에는 한울님을 위한 뜻이 없다.

- ① 갑은 서양의 과학 기술 수용을 반대한다.
- ② 을은 내세에서의 이상 사회 실현을 지향한다.
- ③ 병은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서학의 수용을 추구한다.
- ④ 을, 병은 신분의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지향한다.
- ⑤ 갑, 을, 병은 국난 극복을 위해 유교불교도의 합일을 추구한다.

11. (가)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 B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진리란 탐구에 의해 확인된 신념이나 지식에 불과하다. 인간의 사고나 관념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구이며 이것이 환경과 조화를 이룰 때 진리가 된다.
(나)	<div><div>(가) 사상가의 입장을 탐구한다.</div><div><div>A</div><div>아니요</div><div>B</div><div>예</div></div><div>(가) 사상가의 입장</div></div> <div><div>▶ 법 레</div><div>▶ 출발 조건</div><div>▶ 판단 내용</div><div>▶ 판단 방향</div><div>▶ 판단 결과</div></div>

- ① A: 진리는 행위의 결과에 의해 판단되는가?
- ② A: 경험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수단이 되는가?
- ③ B: 도덕적 진리는 인간에게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인가?
- ④ B: 사회를 끊임없이 성장시키는 불변의 도덕 법칙이 있는가?
- ⑤ B: 도덕적 지식은 사회 개선에 기여할 때에만 가치를 지니는가?

12.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갑, 을의 사회사상적 특징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정부가 빈 병에 지폐를 채워 폐광에 묻고 지표면까지 쓰레기로 채워 놓은 후, 그 탄광을 민간 기업에 맡겨 다시 지폐를 파내게 한다면 실업은 줄어들 것이다.
을: 사회의 일부가 다른 일부를 착취한다는 것은 지난 모든 역사에서 공통된 사실이다. 국가는 무르주아 계급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인위적 도구이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사상적 특징을 비교해 보면, 국가에 대해 ㉠ 갑은 시장의 불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강조하고, ㉡ 을은 국가가 특정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소멸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경제적 본래에 대해 기본적으로 ㉢ 갑은 능력에 따른 본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 을은 필요에 따른 본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 갑과 을은 모두 자본주의 시장 경제 제도를 지지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3.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정의로운 사람의 영혼은 이성과 기개와 정욕의 세 부분이 각각 탁월하게 기능하여 조화를 이룬다.

정의로운 사람은 실천적 지혜를 발휘하여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중용에 따라 행동합니다.

갑

을

- ① 갑은 모든 계층이 절제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 ② 갑은 덕을 지닌 삶과 행복한 삶을 별개의 것이라고 본다.
- ③ 을은 타고난 도덕적 덕의 지속적 실천이 중요하다고 본다.
- ④ 을은 옳은 행동의 반복을 통해 지적인 덕이 형성된다고 본다.
- ⑤ 갑은 앎을, 을은 실천 의지를 유덕함의 유일한 원천으로 본다.

14. 조선 시대 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서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이(理)가 발(發)함에 투철하지 못하여 기(氣)에 가려진 연 후에 불선(不善)함이 있게 된다. 그러나 본래 사단의 정(情)은 이가 발하는 것으로 순선하여 악(惡)이 없다.
을: 이는 양(陽)이 움직이면 거기에 타는[乘] 것이지 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사단은 정의 선한 측면이 맑고 밝은 기를 타고 천리(天理)를 따라 곧바로 나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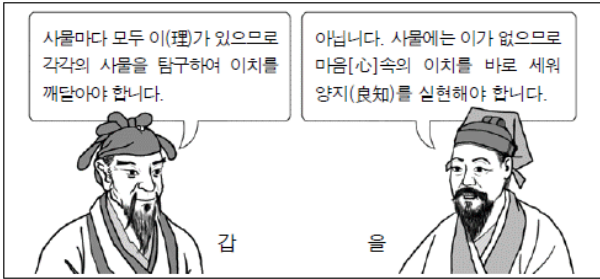
- ① 칠정은 기가 발한 감정인가?
- ② 사덕은 인간의 감정으로 드러나는가?
- ③ 사단과 칠정은 서로 포괄할 수 없는가?
- ④ 칠정에는 인의예지의 단서[端]가 있는가?
- ⑤ 사단과 칠정은 성(性)이 발하지 않은 상태인가?

15.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공통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 자연에 따르는 삶이란 이성에 따르는 삶을 의미한다. 우주의 법칙을 깨닫는다면 어떤 상황에도 동요하지 않는 정신 상태[apatheia]에 도달하게 된다. 을: 자연은 필연적 질서에 따라 구성된 거대한 기계이다. 우주의 모든 일은 신에 의해 결정된 자연 법칙에 따라 발생하며 인간은 신의 유한한 양태이다.
(나)	갑: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라. 그러면 ㉠. 을: 자연을 이성적으로 관조하라. 그러면 ㉠.

- ① 정념으로부터 해방되어 평온한 삶을 영위할 것이다
- ② 인격신의 섭리에 귀의하여 성스러움을 얻을 것이다
- ③ 공적인 삶에서 벗어나 개인적 쾌락을 획득할 것이다
- ④ 필연적 질서를 극복하여 행복한 삶을 향유할 것이다
- ⑤ 주체적 결단을 통해서 운명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16. 그림은 중국 유학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을이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성(性) 자체에 사덕이 내재되어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② 성(性)과 마음이 반드시 구별되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③ 마음과 이치가 본래부터 하나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 ④ 마음의 안과 밖에는 모두 이치가 존재함을 모르고 있다.
- ⑤ 마음의 본체가 이론적 학습을 통해 구현됨을 모르고 있다.

17.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도덕적 판단에서 중요한 요인은 감정이다. 고귀한 행위는 호감을 일으키고, 잔인한 행위는 혐오감을 일으킨다. 따라서 타인에게 쾌감을 주는 것은 덕이라고 할 수 있다.
을: 도덕적 언어에 있어 남성과 '다른 목소리'를 지닌 여성의 특성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성은 자신과 다른 관점들까지 고려한다.

- ① 갑은 도덕적 가치가 객관적으로 실재한다고 본다.
- ② 갑은 사회적 쾌락을 배제한 도덕적 선을 추구한다.
- ③ 을은 합리적 이성애에 따른 공정함을 무가치하다고 본다.
- ④ 을은 여성의 도덕성이 남성의 도덕성보다 우월하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도덕적인 삶에서 공감과 동정심의 작용을 중시한다.

18. 동양 사상이 가,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인간은 눈과 귀의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는 까닭에 보기 좋은 색과 듣기 좋은 소리를 좋아한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성(性)이다. 이러한 본성에 따르면 양보하지 않게 되므로 위(僞)를 일으켜야 한다.

을: 인간의 귀가 음악에 대하여 좋아함이 같으며, 눈이 색에 대하여 좋아함이 같다고 한 것은 성이 선(善)에 대하여 기호(嗜好)하는 바가 같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하늘은 선을 즐겨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본성을 주었다.

- ① 갑은 선이나 악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고 본다.
- ② 을은 덕을 오직 실천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으로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인간이 선을 실현할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사단이 후천적 노력으로 형성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본성을 확충하면 누구나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고 본다.

19. (가)의 갑, 을 사상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C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 모든 현상은 무수한 원인[因]과 조건[緣]이 서로 관련되어 생겨나므로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를 깨닫지 못한 인간은 현상에 집착을 일으킨다. 을: 모든 현상은 의지의 표상(表象)이다. 눈은 보려는 의지가, 두뇌는 알려는 의지가 나타난 것이며, 삶은 어떠한 목적 없이 단지 살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다.
(나)	<div><div><p><범례></p><p>A: 갑만의 주장</p><p>B: 갑, 을 공통의 주장</p><p>C: 을만의 주장</p></div></div>

- ① A: 세계의 모든 존재가 불변함을 깨달아야 한다.
- ② A: 연기(緣起)를 자각하여 실체인 자아를 인식해야 한다.
- ③ B: 금욕적 삶을 통해서 현실의 고통[苦]을 극복해야 한다.
- ④ B: 생(生)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 ⑤ C: 주관적 체험과 직관(直觀)보다 이성적 사유를 중시해야 한다.

20. 다음은 신문 칼럼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칼럼 ○○○○년 ○월 ○일

㉠

현재 우리 사회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시민들의 대표가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한다. 그러나 일부 대표들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다수 집단의 이익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표를 통한 단순한 참여를 넘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서로 다른 정치적 신념을 가진 시민과 공직자,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공적 담론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후략)...

- ① 정치적 비판을 차단하여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하자
- ② 대표의 권한을 강화하여 대의 민주주의를 확립하자
- ③ 사회 쟁점에 대해 구성원 간의 토론과 심의를 활성화하자
- ④ 개인적인 의견의 표출을 자제하고 집단의 목표를 추구하자
- ⑤ 의사 결정 기구의 일원화로 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도모하자